

## 年富亦强(연부역강)한 승자

- 진정 아름다운 패자는 없는가!

요즘 새삼 문화부 기자 시절이 생각난다. 기자 초년병을 갓 지났을 때였는데 1년여 근무하면서 곁가지로 바둑도 떴맷았다. 아마 4단 기력으로 무척이나 바둑에 심취했던 것 같다.

1990년대 중반이었던 당시 바둑계의 이슈 메이커는 이창호였다. 약관 11세의 나이로 프로에 입문, 스승이었던 조훈현을 압도적으로 제압했던 천재성에 단연 포커스가 모아졌다.

당시 내가 가졌던 의문은 바둑의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 이창호의 천하 제패였다. 바둑계에서는 바둑이 인생과 같다는 등식을 세워놓고 있다. 한수 한수의 의미, 승패의 갈림, 돌들의 어울림 등이 인생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한 판의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수를 착점해야 할 때 프로기사들은 흔히 '인생의 기로'에 섰다고 한다.

그만큼 '바둑=인생'이란 공식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창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바둑이 인생의 축소판이라면 농밀도나 성숙도에서 삶의 신고를 겪은 나이 지긋한 프로가 바둑의 오묘한 이치를 더더욱 터득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승률도 한층 나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었다.

'어린 이창호'의 바둑 패권에 대한 해석은 여기에서 시작됐다. 그렇다고 아주 심각한 고민은 아니었는데, 뒤에 나름대로 해답이라며 글을 썼던 기억이 난다.



글·황정욱  
연합뉴스 기자

기자실에 죽치지 않고 바둑계 원로, 전문가 등을 접촉하며 발로 뛰어다니던 취재 결론은 이창호의 힘은 오히려 '어리다' 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었다.

바둑은 알면 알수록 오묘해지는 측면이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일터이다. 중·장년이 되면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려할 것이 많아 한방향으로 몰아가는 힘, 또는 한곳으로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창호는 직접 만나보면 '참 말이 없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순진무구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이창호는 승부, 즉 이긴다는 개념 외에 다른 개념이 들어올 여지가 없게 된다. 그만큼 힘을 한곳으로 겨냥해 몰아치는 집중력을 갖고 승부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리프하지만 이런 정도의 결론을 짜맞춰 기사를 내보내면서 '역시 인생은 어려운 것이야. 누가 알겠어' 라고 생각했던 당시가 떠오른다.

그랬던 이창호가 최근 들어 심각한 부진을 계속하고 있다. 국제 기전에서의 부진은 물론 국내에서 자칫 잘못 하다가는 무관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역시 인생을 알고 나니 힘이 떨어졌다. 내가 보긴 제대로 봤나' 하는 얼치기 생각이 문득 든다.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인생은 실력 순만은 아니다. 실력이 없어도 운이 있으면 살고, 운이 없어도 버티면 이길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보듯 단지 이기려고만 한다면 인생을 털 아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불쌍한 사람 생각하고 없는 사람 생각하다 보면 냉정하게 나 혼자 살자고 한 길로 일도매진하지 못한다.

최근들어 우리 사회가 엄청 험해 지는 것 같다. 서로 눈을 부라리며 니가 옳니, 내가 옳니 따지기가 다반사이다. 너의 이득은 나의 손실이고 나의 이득은 너의 손실이라는 '제로섬 게임' 을 적용하며 이기기에만 몰두해 있다.

기자들도 요즘 피곤하기는 마찬가지다. 가뜰이나 각종 신 매체가 발흥하면서 내 몰리고 있는 판국에 기자실을 없앤다 뭐다 해서 자극해 오고 있다.

가끔씩 드는 생각은 승부에서 이긴 어린 이창호가 좋을까, 아니면 좀 지더라도 이것저것 생각하는 30대의 이창호가 좋을까 하는 것이다. 너무 칼같이 이기기만 하는 이창호가 좋을리 만무한데, 기왕이면 깊이있고 중후한 이창호가 상대방과 어울리는 멋진 판을 짜가면서 승부에도 견뎌낼 수 있는 '진정한 승부사' 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KHA**

